20170314_Brown Bag Lectures

플라톤 <소크라테스의 변론>

정재영(다산학부대학 · 철학)

A. 주요 연표

560 아테네 참주정 시작(페이시스트라토스와 그의 아들 히피아스/히파르코스)
510 아테네 민주정 도입(클레이스테네스)
494 소아시아 독립전쟁에서 밀레토스 함락
490 제 1 차 그리스-페르시아 전쟁(마라톤 전투에서 그리스 연합군 승리)
480 제 2 차 그리스-페르시아 전쟁(살라미스 해전에서 테미스토틀레스가 이끄는 그리스군 승리)
478 아테네를 중심으로 하는 델로스 동맹 결성
470/469 소크라테스 탄생(부: 석공 소포로니코스, 모: 산파 파이나레테)
461 페리클레스 시대 개막, 제 1 차 펠레폰네소스 전쟁
454 델로스 동맹의 금고를 아테네로 이전(아테네 제국시대)
447 파르테논 신전 건립(조각가 페이디아스, 432 완성)
445 제 1 차 펠레폰네소스 전쟁 종식(아테네-스파르타 30 년 평화협정 체결)
431 제 2 차 펠레폰네소스 전쟁 발발(소크라테스는 포테이테이아, 헬리온, 암피폴리스 전투 참가)
430 아테네 역병 창궐(페리클레스 역병으로 사망, 클레온 정권 잡음)
430 카이레폰, 델포이 신전에서 소크라테스 신탁 받음(소크라테스 변론에서 언급)
428/427 플라톤 탄생(424/423 태어났다는 주장도 있음)
423 아리스토파네스 <구름> 상연
419 소크라테스, 크산티페와 결혼(세 아들을 둠)
415 알키비아데스, 시칠리아 원정
411 아테네 4 백인 과두정 쿠데타
410 아테네 민주정 복귀
406 아르기누사이 해전(소크라테스의 변론에서 언급된 사건)
404 펠레폰네소스 전쟁 종료(스파르타 승), 친 스파르타 30 인 참주(크리티아스) 공포정치 시작
403 민주정 회복. 참주정 지도자 크리티아스 사망, 민주정 지도자 아니트스(고발자 중 1 명) 귀환
399 소크라테스 재판, 미나리 독배를 마시고 사망

B. 소크라테스의 변론 읽기

1. 민주주의 탄생지에서 벌어진 역사적 재판

옛날옛날에 고대 그리스의 중심 도시(폴리스)인 아테네에 소크라테스라는 현자가 살았습니다. 그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아테네 법정에서 '사형'을 언도 받은 후, 그의 동갑내기 고향 친구인 크리톤의 탈옥 권유를 마다하고, 담담하게 미나리 독배를 마시고 죽었습니다. 그는 도대체 무슨 죄를 지었길래 민주주의의 탄생지인 아테네에서 사형되었을까요? 아테네 시민은 왜 이 노철학자에게 이렇게 중한 벌을 준 것일까요? 이것은 당대에도 그랬지만, 그 이후에도 두고두고 논란거리가 되었습니다. 어떤 이는 소크라테스를 변론합니다. 어떤 이는 아테네를 변론합니다. 이 공방은 아직도 현재진행형입니다. 그 배경에는 아테네가 발명한 두개의 지적 유산, 곧 민주주의적 가치와 학문(철학)적 가치의 긴장, 또는 정치와 철학의 긴장이 숨겨져 있습니다.

2. 소크라테스 재판의 재구성

책은 아테네 법정에 선 소크라테스가 자신을 변론하는 장면에서 시작합니다. 이 책의 제목인 '변론'(apologia)는 피고의 법정 진술을 말합니다. 그런데 원고 측의 '고발'(kategoria)은 실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독자는 책을 읽으면서 이 재판의 과정을 재구성해야 합니다. 아래 표는 소크라테스 재판을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요약한 것입니다. 중요한 결과와 소크라테스의 변론내용은 여러분이 채워놓을 수 있도록 비워놨습니다.

	Kategoria(고발)	Apologia(변론)
1 차 재판: 유죄인가 무죄인가? 유무죄를 500 명의 배심원이 투표로 결정: 결과:	고발인: 아니토스, 멜레토스, 리콘 고발 죄목: (1) 아테네가 믿는 신을 믿지 않았다 (2) 아테네 청년을 타락시켰다	피고인: 소크라테스 채워 넣어보세요
2 차 형량재판: 고발자와 피고인이 각자 형량을 제안하고 배심원이 투표로 결정 결과:	사형	벌금형(50 므나)
3 차 최종진술	없음	"성찰하지 않는 삶은 가치가 없다는 메시지"를 남김

3. 소크라테스가 적극 변호한 두 가지 변명(apologia)

강연이 끝난 후, 여러분이 직접 도서관에서 책을 빌려서 찬찬히 읽어볼 것을 나는 강력하게 권합니다. 강연 안내를 통해서 전체적인 윤곽을 잡는 일도 필요하지만, 가장 효과적으로 고전 근육을 키우는 데 힘이 되는 것은 고전과 한 번 부딪혀보는 일입니다. 비유하건대 고전을 읽는 것은 내 눈으로 직접 위대한 문화유산을 보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어렵습니다. 오독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독을 겁내거나 두려워하지 마세요. 머리에 담기 어렵다면 가슴에 담으면 됩니다.

<변론>은 뜻밖에도법정 고발 내용을 변호하지 않고 자신을 모함한 소문에 대한 변론으로 시작합니다. 중요한 대목이니 인용합니다.

"그건, 소크라테스라는 한 현자(phronistes)가, 즉 하늘 높이 있는 것들을 골똘히 생각하는 자이며, 지하의 온갖 걸 탐사하는 자가, 그리고 한결 약한(못한) 주장을 더 강한(나은) 주장으로 만드는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테네인 여러분! 이 소문을 퍼뜨린 이 사람들이야말로 저의 무서운 고발인들입니다"(18b-c)

소크라테스가 법정 고발보다 더 무섭다는 '가상 고발'의 내용은 둘입니다. 하나는 하늘과 땅의 일을 탐사한다는 고발이고, 또 다른 하나는 약한 주장을 강한 주장으로 만든다는 고발입니다. 전자는 자신을 자연철학자로 보는 세간의 의혹에 대한 부정이며, 후자는 자신을 소피스테스로 보는 또 다른 의혹에 대한 부정입니다.

4. "나는 자연철학자가 아니다"_소크라테스의 변론

철학의 역사에서 고대 그리스 철학은 둘로 나누는 것이 보통입니다. 도식적이지만 거의 모든 철학사 책에서 구분하는 분류 방식이기 때문에 이렇게 정리하면 편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고대 그리스 자연철학	고대 그리스 인간철학
그리스 식민지 철학	아테네(또는 아티카) 철학
소크라테스 이전 철학	소크라테스 이후 철학

첫 번째 행은 철학의 내용에 따른 분류입니다. 자연철학 vs. 인간철학으로 구분됩니다. 두 번째 행은 지역을 기준으로 한 분류입니다. 식민지 철학 vs. 아테네 철학(아티카 철학)으로 여기서 식민지는 근대 제국주의 역사에서 나오는 식민지 개념과는 다릅니다. 그리스 식민지란 그리스에서 이주한 사람들이 소아시아(지금의 터키)와 이탈리아에 개척한 지역이라고 생각하면 좋습니다. 세 번째 행은 소크라테스라는 인간 지표를 중심으로 기준을 세운 것입니다. 묘한 것은 이렇게 내용/지역/인물로 구분한 것이 실제로는 정확하게 서로 겹친다는 점입니다. 곧 위 표에서 왼쪽 열과 오른 쪽 열은 사실 동일한 것으로 보면 좋습니다.

수식으로 표현하면, "소크라테스 철학=인간철학=아테네 철학"입니다. 로마를 대표하는 지식인 키케로 식으로 표현하면, 그때까지 중심주제가 우주(코스모스)였던 철학을 "하늘로부터 불러내려 도시에 살게 하고, 심지어는 집 안으로 끌어들였으며, 인간의 삶과 도덕, 그리고 선과 악에 대해 묻고 탐구할 것을 강요한 최초의 인물"(*Tusculanae disputationes* 10 권)이었습니다. 키케로의 이 압축적 표현은 찬찬히 음미해볼 가치가 있지만, 여기서 일단 "도시"와 "집"을 주목해주기 바랍니다. 도시는 고대인들의 삶의 터전인 폴리스(polis)를 가리킵니다. 아테네와 스파르타와 같은 폴리스지요. 사실은 로마도 후에는 엄청난 제국이 되지만, 언덕 위의 도시에서 시작했다는 점도 생각하면 좋습니다. 폴리스의 원리에 대한 앎 - 이게 바로 고대인이 생각한 정치학(politika)의 영역입니다. 또 "집"이라는 말에도 주목해주세요. 집은 공적 영역인 폴리스와 대칭되는 사적 영역입니다. 예전에는 우리도 그랬지만, 서양에서도 집이란 출산과 육아, 그리고 훈육을 담당하는 장이며, 병에 걸리면 치료를 받는 곳이기도 하지요. 요즈음처럼 병원에서 임종하고 병원 장례식장에서 조객을 받는 것이 아니라 집에서 그 일을 담당했지요. 물론 집은 두 말 할 필요도 없이 먹고 자고 쉬는 공간이기도 합니다. 이런 사적인 영역에도 철학이 필요한가요? 소크라테스는 그렇게 봤다는 것이지요. 집은 그리스어로 오이코스(oikos)라 불립니다. 집안의 일에 대한 원리를 그리스에서는 오이코노미아(oikonomia)라고 불렀습니다. 이 말은 후에 영어로 이코노믹스(economics), 곧 경제학이 됩니다. 키케로에 따르면, **철학을 하늘에서 땅으로 끌고 온 첫 인물**이 소크라테스라는 것이지요.

5. "나는 소피스테스가 아니다"_소크라테스의 변론

그런데 키케로의 지적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소크라테스가 철학의 관심을 자연에서 인간으로 확 바꾼 인물이라는 것은 맞는데, 그가 최초의 인물은 아니었습니다. 그보다 앞서 인간에 관심을

기울인 인물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소피스테스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일군의 지식인들이 그들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소피스테스로꼽히는 프로타고라스와 고르기아스는 모두 소크라테스보다 연상입니다. 나이가 더 많을 뿐만 아니라 활동시기도 더 빠릅니다. 소피스테스들은 소크라테스처럼 자연의 문제보다 인간의 문제에 더 관심이 많았고, 또 소크라테스처럼 대화를 통한 지식을 추구했습니다. 그들은 또한 인간을 뛰어나게 하는 덕에 집중적인 관심을 쏟았습니다. 이 점에서 소크라테스와 소피스테스는 아테네에 새롭게 등장한 지식인 유형이었습니다.

철학사를 잘 아는 이들은 "아니야, 소크라테스는 소피스테스와 정 반대에 있는 인물이지"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맞습니다. <소크라테스의 변론>을 보면, 이 대목이 소크라테스가 아테네 법정에서 가장 공들여서 변명한 대목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소크라테스 당대에도 그랬고, 지금의 고대 그리스 철학 연구자 중에서도 소크라테스를 소피스테스로 보는 시각도 엄존합니다. 대표적으로 두 사람만 언급합니다. 소크라테스와 같은 시대를 살았던 인물 중에는 유명한 희곡작가 아리스토파네스가 소크라테스를 "소피스테스 중의 소피스테스", 또는 "소피스테스의 왕"으로 지칭했습니다. 그렇게 말한 것뿐만 아니라 소피스테스의 왕인 소크라테스를 주인공으로 해서 희곡도 하나 써서, 아테네의 대표적 행사인 디오니소스 축전에서 연극 경연에 출품하기도 했습니다. 다행스럽게 그 희곡은 아직도 전승되어서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그 희곡의 제목은 <구름>인데, 읽어보면 아주 배꼽을 잡게 되는 장면의 연속입니다. 마치 한바탕 개그 콘서트를 보는 것 같지요. 근대 그리스 철학 연구 중에서는 조지 커퍼드의 <소피스트 운동>이 대표적입니다. 이 책은 소크라테스와 소피스테스를 구분하기 보다는 인간의 삶과 사회의 원리를 정초하고자 했던 지식인 운동이라는 큰 흐름에서 기원전 5 세기 아테네의 지적 지형을 살펴보면서 소크라테스를 소피스테스 운동의 한 축으로 보고 있지요.

소크라테스는 자신을 소피스테스 중의 한 명으로 보는 아테네 인들의 시각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법정에서 자신은 소피스테스가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있으며, 그 누구보다 소피스테스들을 혐오했던 플라톤은 자신의 스승 소크라테스와 소피스테스의 차별성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의 저서 곳곳에서 날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소크라테스와 소피스테스는 무엇이 다르지요?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 단적으로 다른 점은 소크라테스가 덕의 보편성을 주장한 반면, 소피스테스는 덕의 상대성을 역설했습니다. 좋은 삶과 좋은 공동체에 대한 보편적 기준이 있는가 하는 쟁론은 이렇게 소크라테스와 소피스테스의 시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6. 소크라테스가 공식 고발된 두 가지 죄

소크라테스를 법정 고발한 공식 죄목은 두 가지였다고 했습니다. 하나는 아테네가 믿는 신을 믿지 않았다는 죄, 또 다른 하나는 아테네 청년을 타락시켰다는 죄입니다. 이 공식 고발에 관한 한, 소크라테스의 변론은 아테네 법정의 배심원을 설득하는 데 실패했습니다. 나는 소크라테스에게 사형을 언도한 아테네 법정의 판단에 찬성하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아테네 법정의 배심원들이 현자를 무고한 죄로 죽인 악한들이라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소크라테스를 죽음으로 몰고 간 사람은 역설적으로 소크라테스 자신이었고, 이 점에 관한 한 소크라테스는 스스로 자살을 택했다고 지적한 근대 철학자 니체의 지적이 어느 정도는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소크라테스의 선택과 아테네 법정의 선택은 영웅과 악당, 순교자와 박해자의 구도로 단선화시키면, 소크라테스 사건의 심층적 구조가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7. 소크라테스적 가치 vs. 아테네적 가치

소크라테스의 죽음을 보는 시각은 크게 세 가지 다른 관점에서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소크라테스의 입장에서 재판을 보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각은 소크라테스의 제자인 플라톤이 쓴 <변명>과, 또 다른 제자인 크세노폰이 쓴 같은 이름의 책에서 접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소크라테스에게 죽음의 판결을 내린 아테네 시민들의 관점에서 보는 것입니다. 플라톤의 영향력이

워낙 큰 탓에 이 두 번째 아테네 인의 관점은 근대 이전까지는 크게 부각되지 않았지만, 요즈음에는 아테네 시민의 판결을 이해하는 쪽으로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소크라테스가 아테네가 추구한 가치체계를 무시하고 위협하는 독소가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것은 1 번 항목에서 살짝 언급했던 "철학과 정치의 긴장", 또는 "학문적 가치와 민주주의적 가치의 충돌"과 연결이 됩니다. 당대 아테네의 표현법으로 이야기하면 "아테네가 믿지 않는 신을 믿지 않고 자신의 신을 믿었다"는 고발과도 통하는 이야기입니다. 소크라테스는 아테네 체제의 아웃사이더이고, 더 심하게 이야기하면 아테네 체제를 위협하는 반체제 인물이라는 것이지요. 세 번째 관점은, 소크라테스가 추구한 좋은 삶의 원리와 좋은 사회의 원리와, 아테네 인이 추구한 좋은 삶의 원리와 좋은 사회의 원리를 21 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의 눈으로 성찰해보자는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제 3 의 길로 접근하는 방법은 쉽지 않습니다. 이러한 독해에는 표준 답안이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따지고 보면 모든 고전 읽기는 저자의 메시지를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귀를 기울이면서, 또한 동시에 저자가 반대한 상대 편의 입장도 헤아려서 살펴보면서, 현재적 의의(contemporary significance)를 찾는 과정이라고 살 수 있습니다.

8. 타락한 아테네의 청년: 알키비아데스와 크리티아스

다시 소크라테스 사건으로 돌아가서, 법정 고발의 두 번째 항목 "아테네 청년들을 타락시켰다"는 대목을 살펴봅시다. 이 죄목은 당시 아테네 인들에게는 추상적인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아테네 인들은 당장 소크라테스의 두 제자인 알키비아데스와 크리티아스를 떠올렸을 것입니다. 그들은 각각 아테네 민주정과 참주정을 대표하는 귀족 출신의 정치가들입니다. 알키비아데스는 재주와 언변, 그리고 무엇보다도 뛰어난 용모를 가진 인물로 아테네, 스파르타, 그리고 페르시아 제국 등 당시 서로가 서로를 견제하던 세 나라에 번갈아 가면서 적을 둔 철새 정치가였으며, 크리티아스는 플라톤의 친척으로 악명 높은 30 인 참주정의 수뇌였습니다. 두 사람은 정치적 성향도, 개인적 성격도 달랐지만, 두 가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소크라테스의 제자라는 점, 또 다른 하나는 아테네의 라이벌인 스파르타와 커넥션을 가지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아테네 인의 입장에서 보면, 소크라테스가 아테네 인이라면 결코 용서할 수 없는 두 사람의 스승이라는 점을 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이유에서 30 인 참주정이 무너지고 세워진 민주정의 정치지도자 아니코스가 소크라테스를 법정 고발했던 것입니다.

9. 캐어물음

지금까지(3-8 번 항목) 우리는 소크라테스 재판을 재구성하기 위한 몇 가지 역학관계를 "변론"(apologia)-"고발"(kategoria) 내용을 중심으로 갈등의 기본 구도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쯤에서 우리는 이러한 물음을 본격적으로 던져야 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소크라테스가 당시 아테네 인들에게 말하고자 했던 좋은 삶은 무엇인가요? 그리고 소크라테스가 죽음과 맞바꾸면서 추구했던 철학은 좋은 삶과 도대체 어떤 관계가 있나요?

소크라테스는 1 번 항목에서 살짝 언급한 바와 같이 아테네 법정의 최후진술에 이 물음에 대해서 지금까지도 많은 이들이 즐겨 인용하는 답을 스스로 내놓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찰하지 않는 삶은 가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성찰"에 해당하는 그리스 원어는 "엑세타시스"(exetasis)인데, 이 말의 의미는 "꼬치꼬치 캐묻는다"는 것입니다. 과연 아테네 거리를 맨발로 돌아다니며 사람들을 붙들고 대화하기를 즐겼던 소크라테스 다운 답변입니다. 그것도 그냥 덕담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꼬치꼬치 캐물어서 사람들을 성가시게 했던 소크라테스가 아닙니까? 자신도 이 점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법정 변론에서 자신을 신이 아테네에 보낸 '등에'라고 비유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캐어묻는 것은 상대방에게 캐어묻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에게, 나 자신의 삶에 대해서 캐어묻는 것이기도 합니다. 왜 캐어묻는 것이지요? 나 자신을 알기 위한 것이지요. 그래서 델포이 신전에 새겨져 있었다는 유명한 격언 "너 자신을 알라"(Gnothi

Seauton)는 말이 소크라테스 철학을 단적으로 드러내는 말로 바뀌게 됩니다. 철학은 나 자신을 아는 데 있습니다.

우리도 소크라테스처럼 꼬치꼬치 따져서 소크라테스가 멋지게 해석한 "너 자신을 아라"는 말을 더 검토해볼 까요. 나를 알게 되면 무엇이 달라지지요? 도대체 어떤 이득이 있지요? 소크라테스는 <변명>에서 우리의 삶이 "훌륭한 상태"가 된다고 설득합니다. 여기서 따옴표 안의 "훌륭한 상태"는 그리스어 "아레테"(arete)의 번역입니다. 아레테라는 말은 꼭 기억해두세요. 앞으로 우리 강연에서 계속 등장하게 되는 중요한 용어입니다. 이 말의 의미를 꽉 움켜잡으면, 우리 강연을 모두 이해한 것입니다. '아레테'라는 말은 보통 '덕'(德)이라는 말로 번역되지만, 덕이라는 말보다 훨씬 넓은 의미로 사용됩니다.

아레테는 사람에게도 쓰이고, 사물에게도 쓰입니다. 그 의미는 "뛰어남" "훌륭함" "탁월함"입니다. 그리스 어에서 아레테라는 말은 단독으로 쓰이는 경우보다는 종속관계를 나타내는 한정적 용법으로 쓰이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이 말은 항상 "누구의 아레테" 또는 "무엇의 아레테"와 같은 형식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구두를 만드는 제화공의 아레테", "학생을 가르치는 선생의 아레테", "화면이 깨끗한 TV 의 아레테" 같은 식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소크라테스가 "제화공의 아레테" "선생의 아레테"가 아니라 "인간의 아레테가 도대체 무엇인가" 하고 질문을 던진 것입니다. 세상에! 소크라테스의 매력은 이러한 의표를 찌르는 질문에 있습니다. 뛰어난 제화공이 어떤 제화공인가 하는 물음에 대한 답을 하기는 비교적 쉽습니다. 뛰어난 제화공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기능을 가져야 하는가 하는 물음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아레테라니요? 뛰어난 인간에게는 어떤 기능이 필요합니까?

고대 그리스 인들은 인간의 아레테, 곧 인간을 뛰어나게 하는 4 가지 덕목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윤리학 교과서 같은 데에서는 그것을 "그리스 철학의 4 주덕"이라는 식으로 이름을 붙이고, 그것이 절제, 용기, 지혜, 정의라고 요약합니다.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철학 연습을 하면, 참 따분하지요. 좀 더 과감하게 이야기하면, 나는 이것은 철학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절제, 용기, 지혜, 정의 같은 목록은 뛰어난 인간, 좋은 인간이 무엇인가 논의하다가 나온 목록 리스트이지, 그 4 개의 세트를 다 갖추면 자동적으로 뛰어난 인간, 훌륭한 인간, 좋은 인간이 된다는 식으로 접근하면 "마차를 말 앞에 놓고, 마차보고 말을 끌라"고 하는 앞뒤가 바뀐 논의가 됩니다.

다시 소크라테스의 캐어물음으로 돌아가서 이렇게 정리합시다. 소크라테스는 꼬치꼬치 캐어묻는 방식으로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를 탐구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소크라테스가 좋은 삶으로 우리를 안내하는 방법이라고 본 것입니다.

10. 철학은 아포리아(aporia)의 놀라움에서 시작한다

그런데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자신의 고백대로라면 아무 것도 모르는 자가 아닙니까? 이 유명한 이야기는 <변명>에서 소크라테스 자신의 말로 그 연유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의 친구가 델포이 신전에서 "아테네에서 가장 지혜로운 자는 소크라테스다"는 신탁을 받았을 때 소크라테스는 이 신탁을 그대로 믿지 않았습니다. 소크라테스 특유의 캐어묻는 방식을 사용해서 그는 이 신탁을 검토합니다. 그것은 아테네에서 가장 지혜롭다고 이야기되는 사람들을 만나서 대화를 나누어보고, 마침내 델포이 신탁의 내용이 옳다고 인정한 것입니다. 자신은 적어도 자신이 무지하다는 점은 알고 있는데, 다른 이들은 그 사실마저도 모르고 있기 때문에 소크라테스가 가장 지혜롭다는 신탁이 결국 옳다는 것이 아닙니까?

대단한 역설입니다. 소크라테스를 주인공으로 한 플라톤의 <대화>편을 읽어보면, 소크라테스 특유의 캐어묻기 방식으로 다른 이의 무지를 폭로하는 장면이 많이 나옵니다. 이러한 소크라테스식 철학 하기를 "논박술"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또 "산파술"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또

"변증술"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약간의 차이점은 있지만, 우리는 그냥 편하게 "소크라테스 식 대화"라고 부르기로 합시다. 이 소크라테스 식 대화의 요체가 "캐어묻기"입니다. 그래서 플라톤의 <대화> 편을 보면, 소크라테스는 주로 상대방에게 질문을 던지고, 상대방의 허술한 지식을 인정사정 보지 않고 깨뜨립니다. 소크라테스의 의도와는 상관 없이, 상대방은 무척 기분이 나빴을 것입니다. 마치 무엇에 홀린듯한 당혹감을 느꼈을 지도 모릅니다. 아마 자신의 감정을 조절할 수 있는 사람들은 자신의 주장에 허점이 드러난 후, 그렇다면 그 물음에 대한 올바른 주장을 듣기 위해서 소크라테스의 말에 귀를 기울였을 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소크라테스는 그의 말대로라면 아는 것이 없는 사람이지요. 그래서 어떤 뚜렷한 결론을 내지 못하고, 대화는 그냥 끝나버립니다. 세상에!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러한 상태를 "철학은 아포리아의 놀라움에서 시작한다"(형이상학 3 권) 여기서 아포리아는 "통로가 막혀있다"는 뜻입니다. 더 이상 나아갈 수 없는 상태, 바로 이 당혹스러운 사태에서 비로소 철학적 사유가 시작된다는 것이 소크라테스의 손자 뻘 제자가 되는 아리스토텔레스가 정리한 소크라테스 철학의 특징입니다.

이 말을 이렇게 새겨서 들으면 좋다고 봅니다. 좋은 삶과 좋은 사회의 원리를 탐구하는 학문으로 탄생한 철학은 잘 포장된 선물상자와 같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계속 추구해야 하는 끝이 없는 구도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철학은 지혜가 아니라, 지혜 사랑이라는 뜻을 가집니다. 지혜를 가진 자라는 어원을 가진 소피스테스가 궤변을 일삼는 자라는 의미로 전락하고, 겸손하게 지혜를 사랑하는 자라는 뜻을 가진 철학자(philosophos)라는 말에서 철학(philosophia)이라는 용어가 정착된 것은 지독한 역설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아무런 문제를 느끼지 않을 때, 철학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현명한 삶을 위한 매뉴얼만 있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문제에 봉착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공동체도 크고 작은 위기를 겪습니다. 금방 답이 나오는 문제를 아포리아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아포리아는 말 그대로 출구가 막힌 위기 상황입니다. 길이 보이지 않는 꽉 막힌 난제를 가리키는 그리스적 표현이 아포리아입니다. 철학은 이때 등장합니다. 그 이전의 풀이 방식으로는 문제를 풀 수 없을 때, 털썩 주저앉아서 문제를 하나하나 꼬치꼬치 캐어물으면서 검토해보는 것-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좋은 삶이고, 우리가 더불어서 함께 살아가야 하는 좋은 공동체의 원리입니다. 소크라테스와 그의 제자들은 그것을 철학이라는 이름으로 불렀습니다. 철학은 우리가 길을 찾지 못하고 있을 때, 그 답은 이것이요 하고 비밀의 열쇠를 주는 천부경이 아니라, 함께 동행하는 친구와 같은 존재입니다. 사랑을 뜻하는 필리아(philia)는 친구를 뜻하기도 합니다.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전환의 시대입니다. 이러한 거대한 전환의 시기는 앞이 잘보이지 않습니다. 그야말로 아포리아의 시대이지요. 어쩌면 모든 고전은 이러한 아포리아의 산물인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2017 년 고전 브라운 백 강연의 주제를, "거대한 전환, 고전에 길을 묻다"로 선정한 것도 이 때문입니다. 앞으로 계속될 고전 브라운 백 강연에 계속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당부합니다. 끝.